해인총림 해인사, '빛장엄' 만불보전 개원

3월 12일 개원법회 성료
2년 불사 1만 불보살 봉안

광섬유 활용하여 빛으로 장엄
관음보살 · 지장보살 봉안 의미
아미타불 조명으로 법당 위치
현응 스님 "극락정토 형상화"


합천 해인사는 3월 12일 만불보전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만불보전 실내 전경.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현응)가 광섬유를 활용한 빛으로 장엄한 만불보전을 3월 12일 개원했다.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3월 12일 만불보전 및 법계탑 마당에서 만불보전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해인사 만불보전은 고려시대 조성한 관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 복장, 개금불사와 함께 이 두 불상이 모셔진 전각으로 2020년 법당 장엄불사를 거쳐 빛과 음악, 다채로운 색으로 '화장세계'를 표현하여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

만불보전 불사는 2019년 현응 스님이 주지로 부임 후 성보박물관에 봉안된 관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을 대적광전에 봉안하기로 하며 진행됐다. 2020년 1월 10일 보살상 복장 내부 크기를 확인 하던 중 고려시대로 확인되는 사리함 등 복장물이 나오며 보살상의 조성연대 등이 밝혀졌다.

이에 해인사는 만불보전에 친견 법당을 마련하고 9개월간의 복장불사 모연을 통해 2020년 11월 만불보전에서 불복장 및 점안의식을 진행했다.

이후 만불보전 장엄 및 원불봉안 계획이 논의됐으며, 2년여 간의 불사를 통해 광섬유와 세라믹 재질을 활용한 장엄 및 원불 봉안이 이뤄졌다.

법당 상부는 빛과 색으로 장엄됐으며, 원불단과 상하벽면이 스크린화 되어 불교문양을 변화 가능한 다양한 조명으로 장엄하고, 두 보살상 사이에는 아미타불을 조명으로 형상화 했다.

이날 만불보전 개원법회에서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전계사 무관 스님, 산중원로 선용 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다주 여연 스님, 노전 유초 스님 등 사중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세분 성상을 모셨을 뿐만 아니라 원불 형태로 만불을 조성해 봉안함으로서, 모든 불자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고자 했다"며 "빛 장엄이 거룩한 해인사 만불보전은 모든 불자들이 아미타불 극락정토로 왕생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현응 스님은 이어 "해인사 만불보전을 개원하면서 그동안 불보살 성상 복장불사와 개금불사에 동참하고, 법당 조명 장엄불사, 원불봉안에 동참한 모든 불자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우리 모두 보현보살 10대 행원을 실천하면서 극락정토 무량광명세계로 나아가자"고 발원했다.

한편, 만불보전 디자인은 전상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영상 및 음악에는 박제성 서울대학교 교수, 시공은 임병시 전흥공예 대표가 맡았으며, 5차례 '법당 장엄 및 원불 디자인'이 협의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불교대학 첫 졸업생 배출

제1기 44명, 기본교육과정 38명 졸업



전북 서해안 전법과 포교를 위해 설립한 선운사불교대학이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했다.

선운사 불교대학(학장 경우)은 3월 13일 선운교육문화회관에서 제1회 전문교육과정 졸업생 44명과 기본교육과정 1기 8명, 2기 3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졸업식에는 학장 경우 스님과 선운교육문화회관 관장 법만 스님, 고창군사회복지시설장 대원 스님, 문수사 주지 태효 스님, 임종혁 선운사 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유기상 고창군수,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선운사 보은합창단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내외빈 소개, 경과보고, 졸업증서 수여, 시상, 선물증정, 졸업식사, 졸업사, 축사, 발원문 낭독, 축가, 사홍서원,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장 경우 스님은 졸업생 대표 정만수 학생회장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했으며, 손병수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전했다.

시상에서는 교구장상인 문수상에 김정식, 학장상인 보현상에 박선우, 신철희, 신인호, 송순실, 포교원장상인 관음상에 정만수, 임송연. 포교사단장상인 발원상에 조재길, 송하현, 윤이화. 강미정. 원융상에 이영숙. 배영애 졸업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장 경우 스님은 졸업식사에서 "선운교육문화회관은 선운사와 24교구의 원력이 담긴 상징적인 도량"이라며 "불교대학에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소중한 인연이자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만수 학생회장은 졸업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을 자양분 삼아 몸소 실천하고 정진하는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성흥사, 소외계층에 라면 50박스 전달

군산 성흥사(주지 보위)는 3월 11일 군산시 성산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내 독거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한 라면 50박스(1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과 주지 보위 스님이 참석해 김성일 성산면장에게 직접 물품을 전달했다. 물품은 성산면에 거주중인 저소득 취약계층 중 식사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송월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전달하고 싶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성흥사 송월 스님과 불자들은 정기적으로 군산 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도움을 펼쳐오고 있으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산 스님 부도탑, 쌍계사에 세워지다

3월 13일 고산당 혜원대종사 열반 1주기 부도제막식 봉행
'불식촌음' 가르침, 부도이름


도산문도회 스님들이 고산 스님 부도탑을 제막하고 있다.

하동 쌍계사(주지 영담)는 3월 13일 고산당 혜원대종사 열반1주기 부도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산문도회 문장인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을 비롯해 건당 전계제자 보광 스님, 덕민 스님, 선원수좌회 회장 일오 스님, 보인 스님, 해총 스님, 수불 스님, 경담 스님 등 스님들이 참석했다.

도원암 옆에 조성된 고산 스님의 부도탑은 높이 2m, 무게 5t 규모로, 살색과 회색, 하얀색이 들어가 있는 포천석으로 제작해 따뜻한 느낌이 나게 했다. 제작은 최인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담당했다.

부도탑은 고산 스님이 생전 강조한 쌍계사의 전통 정신인 선(禪), 교(敎), 율(律), 차(茶)와 범패(梵唄) 등의 의미를 담아 스님의 견고한 성품과 높은 수행력을 형상화했다.

최인수 교수는 "고산 대종사는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엄격한 일상으로 실천하시며 '불식촌음(不息寸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고산 가풍을 세우셨기에 대종사의 유지를 후학들과 사부대중이 깊이 새기고 실천하라는 뜻에서 '불식촌음(不息寸陰)'이라는 이름 붙였다"고 설명했다. 부도탑 안에는 고산 스님 사리와 함께 생전에 사용했던 다기, 〈육조단경〉 등 경전들이 봉안됐다.

주지 영담 스님은 이날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부도탑 제막식에 참석해줘 감사드린다. 큰스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고산 스님은 1933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나 1945년 출가해 3년 후 동산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았다. 스님은 참선과 경전 공부, 계율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1950년대부터 해인사 · 청암사 등 전국 선원에서 참선 수행했다. 청암사 승가대학 등에서 강백(講伯)으로 후학양성에 나섰으며, 동산 · 석암 스님을 잇는 율사로 꼽혔다.

1975년 쌍계사 주지로 부임해 중창불사를 하며 쌍계사를 전통차(茶) 중심지로 평가받게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등을 지냈으며, 2012년 쌍계사가 선원 · 강원 · 율원 등을 갖춘 총림(叢林) 지정으로 초대 방장으로 추대된 후에도 농사와 참선을 직접 지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백양사 수산 스님 10주기 다례재 봉행



백양사의 큰 어른이었던 수산당 지종대종사(1922~2012) 가르침을 되새기는 추모다례재가 열렸다.<사진>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는 3월 17일 대웅전과 조사전에서 수산 스님 열반 10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원로의원 성오 스님, 수좌 일수 스님, 무공 스님 등 백양사 교구 본말사 스님을 비롯해 문도대표 진각 스님, 만당 스님,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무공 스님은 "스님께서는 청빈한 삶과 수행, 그리고 실천을 통해 살아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셨다. 스님의 마음을 잘 받들어 후손들도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신행회, 도담도담 기금 500만원 전달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3월 17일 도계 스님의 '안아줄께! 도담도담' 기금에 500만원을 전달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선물도 전했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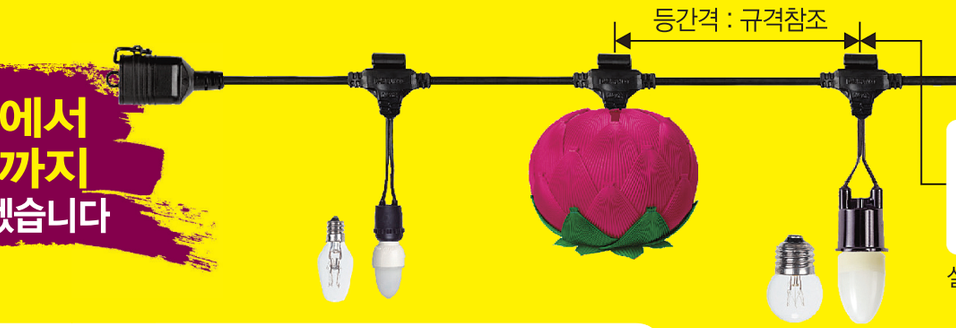
이날 전달식에는 도계 스님(소원정사 주지), 이경훈, 유가림 자비신행회 이사, 박성단 남구학대아동쉼터 센터장과 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도담도담 기금으로 1개 쉼터 3자매(3살 6살, 9살)에게 물품이 전달됐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용품 전달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계 스님은 "앞으로 지속적인 기금 마련에 불교계가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